

주제1. 지원동기 및 관심분야, 입사 후 포부 (공백포함 600자 이내)

“공항의 혈액, 시설직”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이윤 창출을 시도하는 한국공항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사전에 구축하여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약 83.7%를 차지하는 항공운수보조 부문 중에서도 특히, 항공화물 조업 및 화물보관업은 인천공항에서 통관되는 수출입 항공화물에 대한 조업 및 보관과 수출, 수입 등을 담당하는 작업으로 각종 창고 시설을 보유하여 보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시설관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직은 공항을 움직이게 하는 '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구사항을 반영해 설계,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인계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공항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도 담당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공항에 입사하게 된다면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 조치하여 살아 숨 쉬는 한국공항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한 지원사격을 해주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주제2. 본인의 역량 기술 (적성 및 전문지식에 대한 본인 평가) (공백포함 400자 이내)

“나를 뛰어넘은 52일간의 이야기”

'14.6.30 ~ 8.20 간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주관한 해외플랜트건설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며 건설, 플랜트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용접, 후열처리, 해외 PF, 플랜트 기계 공사 등의 수업을 듣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건축업의 특성상 기계, 전기, 토목 분야의 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플랜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생소한 분야도 끈기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3. 학업 외 활동사항 (학회, 동아리활동, 아르바이트 등) (공백포함 400자 이내)

“내 삶의 주인공은 나!”

20살, 대학 진학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선택에 동조하는 것에 익숙했고 도전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봉사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기간부터 이루어진 준비로 인해 정작 활동에서는 팀원들이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자진하여 설거지, 활동일지 작성 등을 하며 팀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가벼웠고 무사히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본인의 껍질을 깨고 나가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공항에 입사하여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계획하고 도전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